

※ 이 파일은 2014년 9월 오프라인 인문·숲 <조원규-치유하는 글쓰기의 모색> 리뷰어 오베르(lecinq4)님께서 작성해주신 강의노트입니다. 온라인 수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수강생분들을 위해 꼼꼼한 강의노트를 제공해주신 오베르(lecinq4)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제3강 치유서사의 인근영역(예술치료)

(참고 텍스트)

- ◎ 오이겐 드레버만<손 없는 처녀>
- ◎ 조원규<80그루 나무들의 추억>

#### 1교시-1 / 2주차 리뷰: 치유서사의 실례 중 예술창작을 통한 방법

##### 2) 나쁜 환상(어두운 환상)

멜라니 클라인은 인간 자체를 비합리적인 경향이 있는 존재로 보았다. 사람은 '편집 분열적 포지션'과 '우울 포지션' 사이를 왕래하며 평생을 산다고 한다. 정신분석은 유아기 때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멜라니 클라인은 나쁜 환상이 유아기 대상관계에서 발견되는 박해의 환상이 그대로 '박해' 혹은 '멸절' 등으로 '과장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한다.

융은 이런 나쁜 환상을 '무의식의 경고'라고 보았다.

##### 3) 치료 종결 지점 → 성숙한 환멸로

욕망의 대상에서 욕망 자체로 시선을 돌리고, 스스로 의지가 있음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결핍의 장소를 외부에서 구하지 않게 된다. 이제 내담자는 상담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주체성을 자각하게 된다. '환멸'을 '긍정적인 이별의 장소'로 받아들인다.

보편성은 없지만, 무상함(바니타스)은 바로크적 감정으로 치유서사가 구현할 수 있는 치유의 방향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의 경우도 긍정적인 의미에서 환멸을 파괴하기는 마찬가지이므로 효과가 있다. 이처럼 저마다의 방법을 만들 수도 있다.

#### 1교시-2 / 예술치료의 구체적 갈래 - 신체적 감각으로 돌아보는 서사의 치유성

##### 1. 오센틱 무브먼트(authentic movement)

오센틱 무브먼트는 몸을 매개로 한 비언어적 내러티브 창작이다. 언어와 의식의 볼륨을 소거하고, 몸이 하고 싶은 동작을 한다. 서사적인 감각은 없다. 진정함, 참됨의 지향을 경험한다.

1) 무버(mover): 동작을 한다.

2) 워트니스(witness); 무버의 동작을 바라본다.

1)과 2)가 역할을 교대하며 진행하고, 동작과 관찰이 끝난 후 대화를 통해 자유롭게 해석된다. 그러므로 객관적 평가는 없으며, 즐거운 이해로 공유한다. 무의식, 전의식에 있던 충동을 꺼내어 서사의 층위로 끌어올려서 '통합'을 한다.

"(신체) → (언어) → (감정)"을 통해서 치유서사창작의 특성으로 제시될 수 있다.

## 2교시 예술치료의 구체적 갈래 - 말, 연극, 밝은 전이, 미술

### 2. 오센틱 워드(authentic words)

오센틱 무브먼트의 '동작' 대신, '말'로 하는 연극이다. 이것 또한 서사를 의식하지 않고, 파편적이며, 충동적이다.

1) 텔러(teller): 이야기하는 사람

2) 리스너(listener): 귀 기울여 듣는 사람

1)과 2)가 같이 감당하면서 이끌어 간다. 바로 '지금' 내 안에 흘러가는 말을 " "인용부호 안에 넣고 탐색한다. 사이코드라마의 전 단계다. 현실충격에서 해방된 표현의 유희가 나타나므로 낯설지만, 흥미롭다. 리스너는 자기의 연상과 지금(오늘)의 영향을 받으며, 반응을 보인다. 현재와 감정을 중요시한다.

### 3. 사이코드라마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이성, 언어, 분석, 과거'를 중시하는데, 모든 예술치료는 '현재, 행동, 감정'을 중요시한다.

사이코드라마의 창안자는 J. Moreno이다. 사이코드라마는,

'억압, 슬픔, 분노'를 꺼내어, 카타르시스를 주고, 상황을 통찰한다.

1) 역할교대 기법: 역할을 바꾸어 상황을 경험한다.

2) 보조자 기법: 관념적으로, 내면적으로 처해있는 상황을 실제 신체적인 상황으로 경험하게 한

다.

3) 이중자아 기법: 살아가면서 대면하도록 요구하는 입장 이면에 있는 자아를 나타나게 한다.

4) 타임머신 기법: 미래를 상상해보며, 극화된 장면 속에서 벗어남을 느낀다.

5) 나누기 기법: 서로의 눈을 봐주면서, 도덕적으로 단죄받지 않았음을 경험하게 하며, 인간으로서 수용하게 해준다.

#### 4. 밝은 전이의 필요성

이야기를 계속해나가는 것은 어렵지만, 더 덧붙일 수는 있다. 어두운 전이를 부정하지 않고, 밝은 전이를 끌어온다. 덧붙이며, 변형한다.

#### 5. 미술치료적 개입의 주안점 9가지

1) **정신분석**은 자유연상을 통해서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 “표현되고 나면 증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분석적이고, 심오하고, 철학적이다. 매끈한 통합보다는 진실과 진리의 노출을 지향한다.

2) **자아심리학**에서는 사회질서와의 조화를 중요시한다. 사회, 기존질서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유도되기 때문에 정신분석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통제력을 돕지만, 독성의 감정과 충동을 ‘중화’시키고, 승화를 지향한다.

3) ‘초상화’에서는 인간관계의 표현이 드러나는데, 타인, 세계에 대한 **대상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4) **융학파**는 ‘도덕적, 윤리적 선택, 사회에의 순응’을 넘어서 있다. 나의 개성화 서사의 관점에서 ‘꼭 필요하고, 납득할 수 있다.’라는 지점으로 이끌어 준다. 정신분석과 입장이 같다. 나의 자존감, 인격, 자율성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5) 다음과 같은 **게슈탈트 순환**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전경화(어떤 느낌이 떠오르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그것의 표현→

에너지 끓어옴→ 행동→ 상황 타계→ 상황 해결→ 후경화(해소)

6) 현재의 나와 사회환경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인본주의적** 관점이 있다.

7) **밀턴 에릭슨**은 최면요법을 통해, 무의식이 담긴 은유적 표현, 은유적 해결을 추구한다.

8) **실존철학**을 예술치료에 끌어들여 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릴 때의 존재 경험을 유도한다. ‘함께한다’는 고유한 시간 체험과, ‘표현한다’는 능동성과 기획 의지를 지지한다.

9) 논평, 분석이 없는 집단공유를 지향하고, 긴장 없이 삶이라는 커다란 흐름에 대한 영적 각성을 하는 초월적 치료가 있다.